

PDF EDITION

# DBR

Dong-A  
Business  
Review

[www.dongabiz.com](http://www.dongabiz.com)

JULY 2013 ISSUE 2, **No.133**

#### 저작권 공지

본 PDF 문서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는 발행사인 (주)동아일보사에 저작권이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본 PDF 문서는 DBR 독자 및 [www.dongabiz.com](http://www.dongabiz.com) 회원에게 (주)동아일보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동아일보사의 허락 없이 PDF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 전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본 파일 중 일부 기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사**

## “풍수는 과학… 컨설팅고객 80%가 서양인”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서구식 빌딩이나 집을 지을 때도 풍수를 따진다. 그렇다면 서구에서는 동양의 풍수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미국의 아시아 커뮤니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풍수 사상이 주류 백인사회에도 알려지게 된 건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부터라는 게 중론이다. 중국식 발음에 따라 ‘feng shui’라고 불리며 건물의 입지보다는 실내 인테리어와 가구 배치에 더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국과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2000년대 이후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화됐다.

아시아계가 아닌 풍수전문가로서 미국 서부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모나 마이니니(Simona Mainini)를 인터뷰했다.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



미국 풍수전문가 시모나 마이니니

으로 밀라노공대(Polytechnic of Milan)를 졸업하고 공인 건축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홍콩인으로부터 풍수를 배워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풍수 컨설팅을 해주기 시작했고 2007년 캐논(Canon)에 해준 인테리어 컨설팅은 <포브스> 紙에서 다루기도 했다. ‘Feng Shui for Architecture’라는 풍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 어떻게 풍수에 관심을 갖게 됐나.

원래 이탈리아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했다. 아시아로 몇 번 여행을 하면서 중국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풍수에 대해 알게 된 건 개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이주해온 후다. 기, 음양의 조화 등 (중국) 풍수의 기본 사상이 내가 알고 있던 중국 의학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더욱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홍콩에서 온 풍수 마스터(로렌스 상)를 찾아가 그에게 15년간 배웠다. 처음엔 친척과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줬고 알음알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풀타임으로 풍수 컨설팅을 하게 된 건 1990년대 중반부터다. 2000년부터는 UCLA대에서 강좌도 열고 있다.

원래 건축일을 할 때부터 디자인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심리와 연관이 큰 풍수에 끌렸던 것 같다.

### 동양과 서양의 풍수는 어떻게 다른가.

서양에도 풍수와 비슷한 지오맨시(Geomancy) 등의 개념이 있다. 하지만 풍수가 훨씬 상세하고 정확한 규범을 갖고 있다.

### 컨설팅을 의뢰하는 고객들 중 서양인의 비중은.

1990년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고객의 대부분이 LA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아시아계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80% 이상이 서양인이다. 또 교육 수준



월트디즈니 콘서트홀(2003년 완공, 프랭크 게리 작품)

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빌딩이나 집을 짓거나 살 때 풍수적 관점에서 조언을 요청한다. 중국 등 아시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풍수를 찾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 아시아인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 이유는.

중국 등 아시아계 자금을 가지고 빌딩을 짓는 미국 건축사무소가 있다고 하자. 빌딩주인인 아시아인들이 자체적으로 아시아인 풍수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예스, 노’를 말해 줄 뿐이다. 나는 건축사와 함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아무래도 서양에서 건축을 전공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서양 건축가들이 나와 일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풍수만 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무실의 가구 방향을 한쪽으로 돌려놨다. 내가 가서 보니까 방향 자체로는 그쪽이 맞는데 사무실 벽과 45도로 사선을 이룬다는 게 문제였다. 아무리 전통 풍수 이론에 맞게 방향을 잡아도 가구가 벽과 비스듬하게 놓이면 방을 쓰는 사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이다.

#### 미국에서 풍수에 잘 맞게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다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풍수가 시작된 것이 약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따로 풍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봐도 된다. 물론 우연히 잘 맞을 수는 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 중에는 게티뮤지엄(Paul

Getty Museum)과 월트디즈니 콘서트홀(Walt Disney Concert Hall)이 눈에 띈다. 이들은 풍수가 좋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보기가 힘들다.

####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풍수적 실수는 무엇인가.

미국 기업들의 사무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수는 사람이 창문을 등지고 앉게 하는 것이다. 큰 창문, 특히 등 뒤에 큰 창문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건 흔히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정반대다. 등 뒤에 있는 뽕 뚫려진 창문은 사람의 기를 약하게 만든다. 일의 능력도 떨어지고 사업도 덜 성공적이 된다.

좋은 풍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카지노의 실내 구조를 만든다고 해보자. 당연한 얘기지만 카지노에서는 손님에게 좋은 풍수가 회사에는 나쁜 풍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 최근에 해준 컨설팅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바르셀로나에 있는 건축사무소의 의뢰로 중국의 고급 의류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컨설팅했다. 이 회사는 매장이 고급스러워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검정 대리석 바닥, 투명 유리 등으로 실내를 꾸몄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인테리어는 작은 매장이라면 모를까 큰 매장에서는 좋지 않다. 음의 기운이 강하면 손님이 들어오기조차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장재를 다 큰 것으로 바꾸라고 조언했다.

한번은 비벌리힐스에 1000만 달러짜리 집을 짓는데 컨설팅해주러 갔다. 그 옆집이 눈에 거슬렀다. 옆집은 90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내가 보니 문제는 계단이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정문을 향해 한 가운데로 나 있었다. 이것은 풍수에서 좋지 않은 구조로 꼽힌다. 그 집은 3년째 주인을 찾지 못했다.

#### 풍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풍수는 건강과 행복을 창조하는 과학이다(Feng Shui is the science of creating health and wellness). 